

칸디思想의 研究 (二)

저자 미상

印度人士는 大部分이 이를 確信하였을 뿐 아니라 칸디 갖은 사람도 더욱 英國의 態度를 再次 確信하고 積極的으로 軍兵募集과 軍資金 調達에 主力을 □든 터인데, 그 時에 英國에서 宣言한것이 卽 「몬타아규[몬타규], 체룸스포 오드」 改革案이라. 이 改革案의 要旨를 보면 印度에 責任政府를 置하고 印度人을 本位로 組織케 하며 人種的 障壁을 撤廢한다 하는 것이로다. 그리 하였는데 一九一九年 二月 卽 □□戰爭 終熄 後에 印度政府는 「로오랏트[롤라트]」 法案을 發表하여 法律을 만드려서 刑罰法과 豫防法의 □案을 新定하였나니, 前者는 犯人檢擧와 處罰을 容易히 하기 爲함이고 後者는 陰謀의 傳播와 陰謀의 遂行을 防止키 爲함인데, 그 外에 또한 緊急法案이 制定되여서 太守가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한 地方에 實施케 한 法案이라. 이러한 內容을 가진 法案을 制定한 後로 前의 印度 政治改革案은 한 空想을 印度人의 頭腦에 남김에 不過하고 事實上 消滅되얏으며, 戰前 印度에 比하여 그 施政 上의 暴虐이 더욱 甚할 뿐 아니라, 이 法律이 制定됨으로부터는 連續的으로 各處에 虐殺事件 等이 頻頻한 中 더욱히 吾人의 耳殼에 아즉도 錚錚히 울니는 것은 彼 「관잠[편잠]」 虐殺事件과 「아니씨」 虐殺事件이니, 이 事件 等이야말로 實로 慘酷無二하여 我水原 孟山 及 □井村事件에 比하면 그 規模의 大기 十數倍요, 死傷者 數가 數十倍이란 말을 드르면 可히 推測할지라. 上記함과 如한 事實 外에 元來 印度에는 約七千萬의 回回教徒가 있는데, 英國은 對印度政策上 戰爭 中에 回回教를 撫摩키 爲하여 彼回回教徒의 教紀國인 土耳其를 完全한 國家로 保障하겠다고 宣言하고, 戰爭後 今日에 至하여 그 處分이 吾人의 熟知함과 갓치 甚히 冷情함으로 回回教徒는 處處에서 彼等의 宗祖國을 爲하여 不平과 不滿을 품고 四面八方으로 暴動을 이리키며 進하여야는 革命運動에 加擔하여 今日에 至하였는데, 「체룸스포오드」 改革案 以來 「로오랏트」 法案을 經하여 「관잠, 아니씨」 等の 虐殺事件으로 因하여, 絶對的으로

英政府에 不信任을 가진 「싼디」는 英國의 對土政策이 그 勢를 도으게 되어서, 於是乎 確乎不拔한 精神으로 猛烈한 國民運動을 일으키게 되얏도다.

三

나는 이제부터 彼印度 國民運動의 精神을 作한 「싸티하그라하」 教義를 一瞥코저 하노니 이를 簡單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도다.

一은 眞理의 謬니, 玆에 「眞理라 함은 單히 詐僞를 憑藉치 안는 것 畚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오 또한 正直은 最良策이라.」하는 말이 잇스나, 그것다고 하면 最良策이 아니면 正直이 아니라고 하여도 조타는 意味가 됴므로 그 意味도 아니오, 오즉 眞理의 法則이란 것은 我等의 生涯를 한번 規律하면 決코야모 것과도 可히 맞굴 수 업다는 意味를 가짓나니, 알기 쉬웁게 例로 說明하면 暴을 暴으로 對하며 血을 血로 洗함을 意味한다는 것이 아니오, 그 所信의 大義大道는 어데까지든지 斷然코 이를 決行하되 오즉 그 精神을 決行하고 理想을 實現함에 當하여 取하는 方法이 惡을 對하되 善으로써 하며 暴을 對하되 忍容堪耐 受難으로써 하나니, 이제 「싼디」의 言을 借하여 이를 說明하면 「짜니엘[다니엘]」은 그 良心에 挑戰的인 「메디아」人과 波斯人의 法律을 無視하고 그 無視에 對한 刑罰을 無抵抗으로 受한 것은 彼가 가장 純粹한 한 狀態에 在하여 眞理의 把持(至上善)를 行함이오, 「쑤크라테스[소크라테스]」는 그 眞理라고 確信한 바를 諄諄히 雅典 青年에게 說하고도 맞잡내 彼는 勇敢한 死刑을 受하얏나니, 彼는 이 境遇에 至上善을 行한 者이오 「푸라하랏드」는 그 父의 命숨이 良心에 不可한 것을 認定함으로도 그를 無視此無視로 因하여 生한 父의 苛責을 甘受하얏스며, 「미라과이」는 自己의 良心에 從함으로 그 良人의 怒念을 買하여 結局 그 良人과 別居하얏스나, 이에 單히 滿足할 畚 아니라 그 意志를 그 良人의 意志에 服從케 하기 爲하여 그 身에 加한 各種 善惡에 對하여 靜肅한 威嚴과 忍辱으로써 耐하얏도다. 「푸라하랏드」와 「미라과이」는 이 境遇에 至上善을 行한 것이로다. 「짜니엘, 쑤크라테스, 푸라하랏드, 미라과이」가 共히 그 □受害者에 對하여 敵意를 抱치 아니한 것은 實로 記憶할 價値가 存한 것이니, 「짜니엘」과 「쑤크라테스」는 그 國歌의 模範的 市民이며 「푸라하랏드」는 模範的 人子이며 「미라과이」는 模範的 人妻이라 하얏도다. 또한 現代人의 行爲 行動이 眞理와 間隔이 大함을 痛論하여 같오되, 友人과 秘密한 談話를 交할 때에 第二의 友人이 來하여 「드러도 關係업느냐?」고 할 때에, 그 友人에 對한 面目과 體面을 보고 엇지 할 수 업서서 「關係없다」고 對答하고 그 秘密한 談話는 中絶하고 다른 談話를 交하게 된 것은 眞理의 法則을 떠난 것이니, 이러한 境遇에는 「秘密한 談

話를 交하는 中이닛까 드러서는 못쓴다。」고 體面을 볼 것 업시 對答한 것이 僞善이 아니오 眞理의 法則에 合한 것이라고 하여, 이 眞理의 耨를 第一의 規律을 삼앗도다.

二는 不殺生의 耨니, 玆에 不殺生이라 함은 動物을 殺生치 아니한다는 말 이지마는 「싼디」는 動物을 殺生치 안는다는 것 畚으로는 不完全하다 하여 그에 幾倍 더 高尚한 意味를 耨쳤나니, 卽 吾人은 누구든지 이를 怒케 하지 말고 敵을 보더라도 無慈悲한 想覺을 갖지 안는다는 것을 心髓에 銘刻하라 하여, 敵이라고 할 만한 境遇에는 「敵이란 自己를 아는 사람」이라 하라 하얏스니, 何故오 하면 不殺生의 教를 信奉하는 사람은 敵의 存在할 餘地가 업시 敵을 否定한 卍답이라. 設使 自己를 或 엇던 사람이 彼の 敵이라고 想覺한 者가 잇더라도 吾人은 그 사람에게 對하여 無關心하고 秋毫라도 惡意를 품지말나 하며, 萬一 毆打를 毆打로 對하면 吾人은 不殺生의 教를 乖離한 것이 라 하며, 吾人이 友人의 行爲 或은 所謂 敵의 行爲를 怒한다고 하면 이 亦是 이를 背反하게 되는도다.